

HEADLINE NEWS

‘장애우’ 를 위한 가로·대중교통 접근성 증진 추진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2002년 7월 「파리 가로접근성 증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이동 약자’, 특히 장애인의 파리市 가로 환경 및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市는 2001년 10월부터 장애인협회, 가로시설물 제조업체 등과 협력해 이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보도와 도로 개선, 횡단보도 소리 신호, 노면 위의 신호 처리, 도로상의 시설물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이동 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市는 이를 위해 2003년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이 계획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市는 향후 10년 동안 5천만~6천만 유로(600억~720억원)를 이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첫해인 금년에는 5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르몽드, 7. 10)

☞ 2면에 계속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인체 유해성’ 논란 빚고 있는 「무선 이동통신 안테나 규제 (파리)
- ② ‘임대·저소득층 주택난’ 대처 위해 민간 태스크포스 운용 (로스앤젤레스)
- ③ 건축물 이해증진의 일환으로 단장된 지하철역사 일반에 개방 (런던)

도시교통

- ④ 지역간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광역교통 통제센터」 설치 (미국: 그린즈버러市/윈스턴세일럼市)
- 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에 「가변 속도제한 표시기」 설치 (휴스턴)
- ⑥ ‘가상현실’을 도입한 운전면허시험 실시 (런던)
- ⑦ 승객 편의 위해 택시 안에 「비디오 스크린」 설치 (뉴욕)
- ⑧ 지속적 도심성장을 위한 「도심교통계획」 수립 (밴쿠버)

사회복지

- ⑨ 월드컵구장을 국가 및 지역 교육의 장으로 활용 (생드니市)

행·재정

- ⑩ 수도(水道) 업무관련 원스톱서비스 창구 설치(요코하마)
- ⑪ 장기 미납된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하면 추가과징금 사면(赦免) (시카고)
- ⑫ 청소년문제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市에 제안할 수 있는 「市청소년위원회」 출범 (파리)
- ⑬ 공공공간을 무료 개방해 ‘밤샘축제’ 개최 (파리)

‘장애우’를 위한 가로·대중교통 접근성 증진 추진 (파리)

☞ 1면서 계속

< 「파리 가로접근성 증진계획」 주요 내용 >

- ▶ 휠체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포장
- ▶ 보도 1.5m 간격으로 나무 심기
- ▶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 ▶ 원격조정 가능하고 수동버튼 있는 소리(음성) 신호등 설치
- ▶ 대중교통 정류장마다 보도쪽에서 승차할 수 있도록 통로 설치
- ▶ 장애인이 승하차하기 쉽도록 승차장은 높이고, 버스 바닥은 낮추기
- ▶ 보도 한복판에 가로시설물(휴지통, 신호등 등) 설치 금지
- ▶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주차장 2/3에 원격조정되는 아치지붕 설치
- ▶ 모든 계단 앞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

① ‘인체 유해성’ 논란 빚고 있는 「무선 이동통신 안테나」 규제 (파리)

프랑스 파리시는 최근 각 민간 이동통신업체가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안테나를 대상으로 규제에 나섰다. 이동통신 안테나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일치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되고 있어, 그동안 안테나가 설치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현재 파리에는 11,000개의 통신 안테나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의 규제조치에 따르면, 학교, 탁아소, 병원, 노인 요양소에는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가 금지되고, 다른 지역도 출력 강도를 m당 2~3볼트 수준으로 약화시켜야 한다. 한편, 이동통신업체들은 에펠탑 하나에서 방출되는 전파가 프랑스 전역에 있는 3만 개의 안테나에서 방출되는 전파에 맞먹고, TV나 라디오 전파가 이동통신 안테나 전파의 100~1,00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조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르몽드, 9. 6)

② ‘임대·저소득층 주택난’ 대처 위해 민간 태스크포스 운용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주택국은 임대 및 저소득층 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의 캘리포니아대학(UCLA)과 계약을 체결, 태스크포스(Housing Crisis Task Force)를 운용하고 있다. 市주택국은 캘리포니아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임대 및 저소득층 주택의 가격 및 공급동향 정보와 함께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공받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동향 정보 및 정책 권고 내용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www.lacity.org/LAHD/index.htm)

③ 건축물 이해증진의 일환으로 단장된 지하철역사 일반에 개방 (런던)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 오픈 하우스’의 일환으로 디자인과 역사가 서로 대비되는 지하철역 2곳이 대표적인 20세기 건축물로 선정,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런던 오픈 하우스’는 건축교육재단에서 런던 건축물과 건축 환경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런던의 건축물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방문객들에게 건물의 디자인과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현재 건물이 처한 문제를 직접 살펴보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한 곳은 레슬리 그린에 의해 디자인되어 1906년에 문을 연 Knightbridge역이고, 다른 한 곳은 크리스 월킨슨이 디자인해 최근에 문을 연 Stratford역이다. Stratford역은 여러 차례 건축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하다.

런던지하철측은 지하철이 시민들에게 수단적 편의만을 제공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역사적, 건축적 의미도 제공해 주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를 반기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지하철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ETRO, 9. 18)

4 지역간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광역교통통제센터」 설치 (미국: 그린즈버러市/윈스턴세일럼市)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교통위원회는 그린즈버러(Greensboro)와 윈스턴세일럼(Winston-Salem) 지역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통제센터(Traffic Management Center)를 통합해 「광역교통통제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최근 승인했다. 이러한 광역차원의 통합은 기존 교통관리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센터는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수집된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교통당국은 이를 위해 교통카메라 및 광케이블 등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주에는 이러한 「광역교통통제센터」가 이미 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시설들은 교통행정의 지역간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www.ncdot.org/news/trafficmgmtctr02_08.html)

5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에 「가변 속도제한 표시기」 설치 (휴스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의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낮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내의 도로에 「가변 속도제한 표시기」를 시범적으로 도입,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이 「가변 속도제한 표시기」는 등·하교시에는 제한속도를 20mph로, 그 밖의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mph로 나타낸다.

또한, 이 표시기는 기존의 제한속도 표지판과는 달리 훨씬 눈에 잘 띄어 운전자의 주의로 속도제한을 어기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표시기를 전부 설치하기 위해 표시기 전원으로 태양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다.

(www.chron.com/cs/CDA/story.hts/education/backtoschool/1540275)

6 '가상현실' 을 도입한 운전면허시험 실시 (런던)

영국 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가상현실' 요소를 금년도 11월 14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당국은 1분 길이의 필름 14종을 운전면허시험에 도입할 예정인데, 예비 운전자가 각각의 위험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지는 컴퓨터 마우스 클릭이라는 방식을 통해 측정하게 된다. 물론, 예비 운전자가 빨리 대처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75점 중 38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버스와 트럭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44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응시자가 위험인지테스트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

영국에서는 매년 수 천명의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사망하는데, 대부분이 초보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라고 한다. 운전표준청은 새로운 시험제도에 대해 '위험인지테스트는 예비 운전자의 위험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예비 운전자 중 일부는 '컴퓨터가 운전자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차 안에서 위험 대처와 관련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Guardian, 9. 20)

7 승객 편의 위해 택시 안에 「비디오 스크린」 설치 (뉴욕)

미국 뉴욕시의 택시연합회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뉴욕시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비디오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다. 승객들은 이 「비디오 스크린」을 통해市の 문화·스포츠 행사·박물관전시 계획, 콘서트 및 개봉영화 안내, 유명 식당 소개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택시연합회는 7개 업체로부터 「비디오 스크린」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며, 비용은 광고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뉴욕시에서 운행하는 12,178대의 택시 중 우선적으로 350대에 「비디오 스크린」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www.newsday.com/news/local/newyork/)

8] 지속적 도심성장을 위한 「도심교통계획」 수립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시는 도심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심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심교통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교통계획의 고려대상 우선순위로,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화물교통> 개인교통의 순서를 정립한 1997년의 「밴쿠버교통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계획은 보행이 가능한 도심, 자전거 통행 네트워크 구축, 도심내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대중교통망 구축, 안전하고 지속적인 교통관리 및 화물교통체계 정립 등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76,000명의 주민과 132,000명의 취업자가 있는 도시의 여건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초해 수립된 이 계획에서는 교통부문이 지속적인 도심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www.city.vancouver.bc.ca/dtp)

9] 월드컵구장을 국가 및 지역 교육의 장으로 활용 (생드니시)

프랑스 파리 북부 생드니(Saint-Denis)에 있는 스타드 프랑스 경기장 ('98년 프랑스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금년도 9월 16일부터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기장이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건축적 유산으로 자리 매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드 프랑스 경기장은 크레테이 지역 아카데미와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드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지역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경기장 곳곳을 둘러보는 것 외에도 경기장 내에 설치된 지역, 과학 등 여러 다양한 주제의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다. 요금은 학생 10유로, 성인 14유로이다. (르 파리지앵, 9. 17)

④ 수도(水道) 업무관련 윈스톱서비스 창구 설치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수도(水道)에 관한 문의를 일괄 접수·처리하는 종합창구인 「市水道局 인포메이션센터」를 금년도 8월 5일 오픈했다. 이 센터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종전에는 시내 18개區의 영업소에서 접수·처리를 해왔으나, 연말이나 이사철에 문의전화의 폭주해 연결이 쉽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는 센터에서 운영을 민간의 전화접수업체에 위탁, 전화문의가 많을 때에는 인원수나 회선수를 조정한다.

센터에서 접수가능한 사항은 이사에 수반하는 수도 사용이나 중지 절차, 수도 요금이나 사용량 조회, 단수(斷水)나 누수(漏水) 문의 등이며, 팩스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각 문의사항은 해당 영업소별로 분류되어, 팩스 등으로 보내진다.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요청사항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서비스 개선에 반영된다. 센터의 접수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카나가와(神奈川) 신문, 7. 31)

④ 장기 미납된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하면 추가과징금 사면(赦免)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주차위반 범칙금 장기 미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누적된 주차위반 범칙금이 5,000달러 이하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범칙금을 납부하면 추가과징금을 면제시켜 주는 「Parking Break Amnesty Program」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발부된 주차위반 딱지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이 2002년 9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기본 범칙금을 제외한 추가과징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2002년 10월 5일부터는 주차위반 딱지 3장 이하일 때만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www.ci.chi.il.us/revenue/parking/amnesty.html)

④ 청소년문제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市에 제안할 수 있는 「市청소년위원회」 출범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참여민주주의를 확대 실현시키기 위해 「市청소년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청소년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아동위원회 등 여타 市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책제안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3~25세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市에 제안할 수 있다. 市는 나아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 모든 주제에 대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區에서는 區의 사정에 맞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는 가입자,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市청소년위원회」가 13~25세의 청소년 및 청년으로 구성된 데 반해, 제11區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13~18세로 대폭 낮춰지기도 했다. (르 파리지앵, 3. 13)

④ 공공공간을 무료 개방해 ‘밤샘축제’ 개최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금년 여름에 ‘파리-해변’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한 데 이어, 이번 가을에는 ‘밤샘축제’를 개최했다. 市는 10월 5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31곳의 공공공간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市전역에서는 음악, 미술 등 예술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야간축제’의 기획 의도는 현대 예술을 대중과 접촉시키고, 예술의 엘리트주의를 배제하며, 창의성과 경이로움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시민이면 누구나 관람객이 아니라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모든 것이 공짜’라는 원칙이 적용된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시민이면 누구나 파리의 밤거리에 자신의 창작물을 배치 및 전시할 수 있었다. 市는 이번 축제를 위해 수영장, 에펠탑 등 총 26,000㎡의 공공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15곳의 주요 지점을 10분 간격으로 도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했다. 市는 이번 ‘야간축제’를 위해 150만 유로(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르 파리지앵, 9. 21)